

소중한 생명을 지킨 활나의 용기



왼쪽부터 가정간호사업실 주혜원·박강륜 간호사, 영상의학팀 김세훈 방사선사.

모든 사고는 예고 없이 평범한 일상의 틈새를 비집고 찾아온다. 평범한 하루가 순식간에 긴박한 응급상황으로 바뀌는 순간, 망설임 없이 달려간 이들이 있다. 강릉아산병원 영상의학팀 김세훈 방사선사, 가정간호사업실 박강륜 대리·주혜원 주임은 업무와는 상관없는 장소와 시간이었지만 눈앞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환자에게 달려갔다.

도랑에 빠진 차량을 향해 뛰어든 방사선사

쉬는 날 친구와 함께 놀러가던 김세훈 방사선사는 차량 한 대가 도랑에 처박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 주행방향과 반대를 향하고 있는 차량을 본 그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사고 신고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친구와 함께 다가갔지요.”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70대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밖으로 옮겼지만 바닥은 진흙 투

성이에 의료장비도 없었다.

“학교와 병원에서 실습을 많이 했지만 실제 상황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밭에서 CPR을 해도 될지, 원칙대로 평평한 곳으로 옮겨야 할지, 옮기다가 시간이 지연되는건 아닐지 수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망설임 시간도 아까운 순간이라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죠.”

이후 환자는 119구급대에 무사히 인계됐고,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그리고 김세훈 방사선사는 환자가 직장 동료의 아버지였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얼마 뒤에 가족분이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나눴어요. 환자분도 후유증 없이 회복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항상 CPR을 강조하시던 대학 시절 교수님까지 칭찬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세훈 방사선사는 8월 10일 강릉소방서로부터 심정지 환자를 구조한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지켜낸 골든타임

“우리 저기 가봐야겠다!” 가정전문간호사인 박강륜 간호사와 주혜원 간호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시간을 맞춰서 점심을 같이 먹지

요. 그날도 모처럼 만나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유독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서 유심히 보니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고현장을 살펴보면 한 운전자가 자기 차로 뛰어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두 간호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위급한 상황이었다. 순식간에 피부색이 변하더니 결국 맥박이 사라졌다. 박강륜 간호사는 곧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했고, 주혜원 간호사는 기도를 확보하고 119에 다시 연락해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알렸다. 박강륜 간호사가 “18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심장 압박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숙련된 의료진과 장비가 있지만 그때는 콘크리트 도로 위에서 맨손으로 환자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둘이 있었기에 빠른 판단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어요.”

다행히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듯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구급차가 찾아왔다. 응급키트와 응급구조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빠르게 이송할 수 있었고, 환자는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CPR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선뜻 나서기 어렵다. 박강륜·주혜원 간호사는 이 경험을 통해 CPR을 반



환자 방문 일정을 의논하는 가정간호사업실 박강륜·주혜원 간호사.

복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뉴스가 나온 뒤 지인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CPR에 대해 아는 사람들도 ‘나라면 아무것도 못 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일반인도 쉽게 배우고 반복해서 익힐 수 있는 교육이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확대되면 위기 상황에서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훈 방사선사도 마찬가지다.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내 가족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도 누군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지켜낸 것은 한 사람의 생명만은 아니다. 병원 안이든 밖이든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먼저 다가가 누군가의 평범한 오늘과 가족의 일상을 다시 이어준 것이다. 세 사람은 “앞으로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의료인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글 편집부



검사를 위해 환자를 안내하는 김세훈 방사선사.